

# 어린이 상담을 위한 아동화의 심리진단

박 기 호\*

목 차	
I. 서 론	III. 어린이 상담을 위한 아동화의 심리진단
II. 이론적 배경	1. 아동화의 심리적 반응
1. 어린이 발달과 미술표현	2. 심리진단과 어린이 상담치료
2. 심리분석과 투사적 기능	V. 결 론
3. 심리진단을 통한 상담	참고문헌

## I. 서 론

어린이들의 정서적 안정은 부모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도덕적 습관이나 형식적인 대화보다 상상력을 심어주고 아픈 마음을 읽어 주는 풍부한 감정을 지닌 대화가 정서적 발달에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하다.

현대 문명사회는 매스컴의 발달과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대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부모나 가족, 이웃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이러한 단절된 환경 속에 방치되어 정서적 부조화를 보이게 되었다.

성인들은 어린이들의 가장 인간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 어린이를 하나의 인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물질적 만족보다 따뜻한 애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명사회의 발달은 어린이들과 엄마의 따뜻한 대화의 시간을 빼앗아갔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많은 시간을 텔레비전과 로봇 장난감에 의지하여 시간을 보낸다. 그들의 정서적 안정은 부모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도덕적 습관이나 형식적인 대화보다 상상력을 심어주고 아픈 마음을 읽어주

\* 제주관광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는 풍부한 감성을 지닌 대화가 필요하다.

어린이들은 습득된 어휘력이 미성숙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나 느낌을 언어로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시기에 놓여 있다. 그러나 어휘력이 미성숙한 반면 미술, 음악과 같이 흥미를 자극하는 일에 잘 빠져들기 때문에 유희적 표현활동과 더불어 대화의 통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희적 표현활동 가운데서도 아동화는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매체이고 연령에 구속받지 않는 하나의 표현언어이다. 그러기 때문에 아동화는 심리진단을 통해 내적 정서상태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어린이 상담을 위한 아동화의 심리진단은 미술표현을 바탕으로 감정을 자유롭게 발산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갈등의 단서를 발견하고 상담을 통하여 심리적 치료를 효율적으로 돕는 데 있다. 어린이 상담은 단순한 대화에 그치지 않고 어린이의 내적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출발하며, 그것을 수용하고 공감함으로써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어린이들의 정신건강을 돕는 데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 상담의 중요성은 어린이가 스스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린이 상담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내야 하고 하나의 심리적인 문제가 제시되어야 한다. 대부분 어린이들은 그냥 대화를 나눌 때에 자기의 내적 감정을 숨기며, 주변의 상황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화제를 바꾼다. 그런데 반해 아동화는 표현과정에서 심리상태가 드러나며, 하나의 상황이 주어지면 그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갈등이나 생각이 부여된다. 이때 어린이의 무의식적으로 심리상태가 투영되어 하나의 상담의 실마리를 마련해 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동화 표현의 특성과 심리진단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아동화를 통한 어린이 상담의 방법을 모색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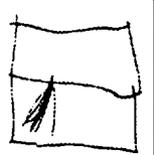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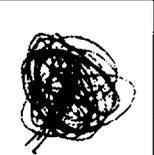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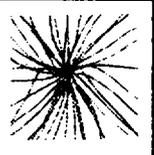
### 1. 어린이 발달과 미술표현

어린이 초기의 낙서적인 난화표현(Scribblings, 2~3세)에서 도형표현(Diagram, 3~4세)으로, 도형표현에서 다시 개념적인 도식표현으로 발달하게 된다. 도식(Schema; 5~8세)에서 주로 태양, 인물, 나무, 집, 꽃 등 유사한 형태로 반복하여 그리게 되는데, 이는 어린이들의

아주 보편적인 특징이라 하겠다.<sup>1)</sup>

두 살이 넘어서면서 어린이들은 대부분 서툴고 이해할 수 없는 낙서를 즐기고 자기가 표현한 낙서나 도형에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것은 자기가 표현한 것에 여러 가지 개념을 연결시키려 보려고 노력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인들은 이 시기의 어린이들이 표현 능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코 표현 능력이 불가능한 시기에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미성숙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어린이가 태어나 두 살에서 네 살에 이르는 동안 알아보기 힘든 어지러운 낙서를 즐기는데, 바로 이것이 어린이에게서 최초로 발견할 수 있는 미술 표현적 징후라고 보았다. 겔록은 <그림 1>과 같이 세계 각국에서 모은 수십만 점의 어린이 그림을 조사하여 난화기의 특징을 낙서(Scribblings, 2~3세), 도형(Diagram, 3-4세), 결합(Combine, 4-5세), 조합(Aggregate), 만다라(Mandala), 방사형(Radials), 등으로 나누었다.<sup>2)</sup>

<그림 1> 유아의 선묘 표현

낙 서	도 형	결 합	조 합	만 다 라	방 사 성	태 양 형
						

어린이의 선묘는 난화와 도형의 교차 혹은 결합에 의한 구성적 패턴에서 인물이나 태양 등의 형상으로 발달하고 다시 집이나 나무 등을 즐겨 그리는 도식기로 성장해 간다는 것이다. 겔록의 공헌은 어린이의 난화표현에 있어 다섯 살 이전의 다양한 시각적 관심사를 제공해 주었다는 데 있다. 두 살 이후의 어린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난화에서는 선묘의 유형이나 구도(배치)에 있어서는 다양하지만 구체적으로 형상을 표현하지 않고 조금씩 지각에 대한 반응이 보이기 시작한다.

난화의 선묘는 <그림 2>에서 보듯이 일정한 방향으로 선의 반복, 지그재그선의 교차, 반복적으로 모인 점, 단선의 나열, 곡선이나 나선의 교차 등의 다양한 표현양식이 나타난다. 세 살 이후에는 차츰 도형(Diagram), 주로 단선 결합에 의한 사각형, 타원형, 삼각형, 십자형 등의 표현을 즐긴다. 그리고 다시 두 개의 도형이 연결된 결합, 세 개 이상의 도형이 연결된 조합, 소용돌이 모양의 만다라 혹은 사방으로 뻗쳐진 방사형, 태양형 등의 복잡한 형태로 발달한다.

<sup>1)</sup> Rhoba Kellogg 著, 이인태 譯(1987), 『유아미술』, 보육사, pp. 14~167.

<sup>2)</sup> Rhoba Kellogg 著, 이인태 譯(1987), 상계서, pp. 8~85.

<그림 2> 유아의 난화 유형

선의 반복	지그재그 선	모인 점	단선의 나열	나선의 교차
				

그리고 최초 도식기의 어린이는 인물을 그릴 때 몸체를 생략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는 태양형의 선묘에서 인물 표현으로 분화하는 과정이라 하겠다.

<그림 3> 도식적 표현의 특징

단순적 표현	자기 중심적 표현	시점 이동 표현
		
투시적 표현	기저선 표현	열거식 표현
		

어린이들은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어떤 도형이나 도식(Schema)을 반복하여 표현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지각 개념을 명료하게 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된다. 그러므로 다섯 살 이후 어린이의 그림은 일정한 소재를 중심으로 주어진 주제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배치, 또는 재구성하는 공간 탐색기라고 하겠다. 도식 표현에는 <그림 3>과 같이 단순적 표현, 자기 중심적 표현, 시점 이동 표현, 투시적 표현, 기저선 표현, 열거식 표현 등이 있다. 선과 도형을 결합하여 미분화된 형태를 처음 시도하는 시기로 인물을 표

현할 때 몸체나 손과 발 등 세부적인 형태를 생략하고 도형간의 결합을 통해 어떤 형태의 윤곽만을 드러내는 ‘단순적 표현’, 주변의 소재보다 자기 자신이나 자기 관심사를 주변의 대상보다 확대하여 크게 그리는 ‘자기 중심적 표현’, 앞면과 옆면을 동시에 한 화면에 그리는 ‘시점 이동 표현’, 공간 처리에 있어 건물이나 버스를 그릴 때 걸 모습과 함께 보이지 않는 내부 속까지 그리게 되는 ‘투시적 표현’, 도화지 윗부분을 하늘로 아래를 땅으로 나누는 ‘기저선의 표현’, 전체적인 통일성에는 관심이 없고 생각나는 것을 나열하듯 그려 나가는 ‘열거식 표현’의 특징이 흔히 나타난다. 이외에도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의 흐름을 무시하여 표현하는 ‘동시적 표현’과 말을 탄 사람이 말 위에 떠 있는 형태로 그리는 ‘미분화 표현’등이 있다. 그리고 도식기 어린이에게는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서 우선 어린이의 조그만 변화에도 부모와 교사들은 새로운 감동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표현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sup>3)</sup>

## 2. 심리분석과 투사적 기능

아동화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는 1887년부터 리치(C. Ricci)에 의해 시작된 이후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상태를 형상화할 수 있는 매체 표현 속에서 내적 감정상태가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가설 아래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19세기초의 아동화 연구는 심리진단 기능보다 지적 성숙도(IQ)를 측정하는 도구로서의 연구가 가속화되어 왔다. 1940년대 전후에 와서야 비로소 아동화가 지적 성숙도의 측정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인격진단의 도구라는 심리적 특성과 심리적 상태에 관한 확증을 찾기 위한 임상심리학자들의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 대표적 인물로 매코버(Machover), 버크(Buck), 알슐러와 하트비크(Alschuler & Hattwick) 등이 있다. 아동화를 이용한 심리 투사기법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인물화 검사, H·T·P 검사, 나무그림 검사, 자유화 검사 등이 있다.

인물화 검사(Draw a Man Test)는 인물화를 어린이 인성진단의 도구로 삼은 것으로 매코버(Machover)에 의해 발전되었다. 인물화는 정신분석적 투사 이론에서 뿐만 아니라 자아상·신체상의 투사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인물화의 왜곡된 형상은 자아상·신체상의 부적절감이나 환경과의 부적응을 상징적으로 표상하는 것을 가리킨다.

H·T·P 검사는 버크(Buck)에 의해 창안된 기법으로 피험자에게 집(House), 나무

<sup>3)</sup> 권상구(1991), 『아동미술교육』, 미진사, pp. 26~36.

(Tree), 사람(Person)을 그리게 하고 그림의 특징을 결정짓는 요인에 관해서 어린이에게 질문하는 형식의 '집-나무-사람 그림 검사'이다. '집'은 가정 환경이나 인간관계와 관련된 연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대인 관계와 관련된 연상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이 만족했던 대인관계나 좌절된 대인관계를 나타내거나 외부 세계에 대한 자아의 심리적 적응으로 현실과 접촉, 자신에의 접근 가능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나무'는 환경세계에 대한 자아의 적응을 투사하고, '사람'은 자아상 또는 중요한 사람과의 관련된 연상을 일으키며 그의 심리적·사회적인 적응도를 나타낸다.

나무그림 검사(The Tree Drawing Test)는 코크(C. Koch)가 피험자에게 나무를 상상하여 그리게 하여 인성진단을 한 데서 비롯되었다. 나무는 무의식적이고 감추어진 감정이나 성격과 관련된 연상을 할 수 있는데, 그리는 사람은 그의 환경과의 관계에서 느낀 인상을 전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나무가 가늘게 그려진 것은 열등감·소극적인 행동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무 그림은 자아상, 환경에서 얻은 경험, 정신적 성숙도, 대인관계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자유화 검사는 내적 욕구에 맞추어 자유로이 소재를 선택하고 표현한 그림을 분석 검토하는 것이다. 자유화는 환경에 대한 태도 뿐만 아니라 감정이나 사고, 욕구, 흥미의 대상까지도 투사되어 나타난다. 자유화 기법은 배너(Waehner), 알슐러와 하트비크(Alshuler & Hattwick)에 의해 연구되었다. 배너의 연구를 보면, 다양한 색채화로 자유화를 그리게 하여 형태에서 지능을 검사하고 색채 종류나 명암, 직선, 곡선 등에 따라 심리적 안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는 색채의 변화와 무채색의 표현에 따라 발동성, 짧은 선과 작은 곡선은 공격성, 윤곽과 직선적 표현은 내향성으로 파악하며 그 외에도 강제성, 분열중적 경향 등을 탐지하도록 연구되었다. 또 알슐러와 하트비크 연구는 색채화에 의한 인성진단 방법과 많은 사례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자유화는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내적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투사적 기법 중 가장 의미 있는 도구가 되었다.

어린이의 언어를 매개로한 심리진단은 어린이 자신의 언어발달의 미숙과 객관적 평가자료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에 반해 어린이의 자유로운 표현활동을 매개로한 투사적 방법은 이러한 언어적 수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구조화된 반응을 탐색하는 것으로 다양하고 자유로운 반응을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sup>4)</sup>

<sup>4)</sup> 박재명(1969), 『아동화의 심리진단적 가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p. 10~13.

### 3. 심리진단을 통한 상담

아동화의 심리학적 기능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미술의 '심리진단적 기능'으로 어떤 진단기준을 설정하고 색채나 대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여 환경적 부적응의 원인이나 심리상태를 발견하는 기능과 둘째는 미술이 가지는 '심리치료적 기능'으로 흔히 미술치료(Art Therapy)라고 불리며, 미술표현을 반복함으로써 자기 감정을 발산하도록 도와주어 감정을 순화시키는 유희적 요법의 기능을 말한다.

여기서 미술의 심리치료적 기능은 아동화나 점토놀이, 핑거페인팅(Finger Painting)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표현을 자주 갖게 하여 감정을 토해 내고 정서 순화 효과를 얻게 하는 것이다. 환경의 부적응, 의욕상실, 애정욕구 등의 근본적인 원인이나 복잡한 정서 상태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여기서 복잡한 정서 치료효과를 효율적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상담을 통한 심리치료가 무엇보다 요구되며, 어린이 미술활동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접근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먼저 상담이란 제안이나 조언, 충고와 달리 갈등이나 충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노력이다.

아동화에 의한 상담은 아동화에 투사된 심리적 불안 요인을 먼저 발견하고 상담의 실마리를 얻는 것이며,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상담을 진행하여 심리치료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동안 실제 경험한 사건이나 문제가 상징적 대상을 통하여 심리적 갈등 요인을 드러내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례가 흔히 있다. 이와 같이 도움을 청하는 행위를 상담에서는 원조라고 한다. 이때부터 부모에게는 상담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게 된다. 어린이들은 상담자에게 고민을 호소하여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거나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므로 어린이의 그림에 심각한 갈등을 표현했다고 해서 언제나 상담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적절한 시기에 원조를 요구하면 몇 주일, 혹은 몇 달에 나누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상담은 어떤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sup>5)</sup> 즉 상담은 어린이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어 어떠한 결과가 되리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자율성과 통합성을 목표로 하여 문제해결보다는 어린이 자신의 심리적 해방과 모든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주려는 것이다.<sup>6)</sup> 아동화 표현은 어린이의 내적 심리상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환경에 의한 내적 갈등의 요인을 상징적으로 투사하고 거기서 심리진단의 상징적 단서를 발견하는 것이다.

<sup>5)</sup> 이성진(1996), 「교육심리학서설」, 교육과학사 pp. 356~357.

<sup>6)</sup> C. Rogers著, 한승호 譯(1994),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pp. 38~57.

### Ⅲ. 어린이 상담을 위한 아동화의 심리진단

취학전 어린이는 심리상태에 따라 색채나 소재(대상)의 선택이 달라진다. 그러기 때문에 색채나 소재를 제한하여 진단을 한다면 올바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자유로운 표현활동 속에서 무의식의 감정이 들어나기 때문에 선묘, 색채, 구도, 형태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요구된다.

#### 1. 아동화의 심리적 반응

생후 2년이 채 못되어서 어린이는 애정, 미움, 공포, 불안 등의 정서가 발달한다. 취학전 어린이는 육체와 인지(認知)발달이 미성숙한 시기에 놓여 있으므로 자기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어린이들은 오히려 성인보다도 빈번하게 기쁨과 슬픔, 애정과 미움, 안정과 공포 등의 정서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sup>7)</sup> 이런 시기에 아동화 심리진단은 겉으로 노출되지 않은 정서적 갈등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있다. 심리진단의 대표적인 학자로 알슐러와 하트비크(Alschuler & Hettwick), 버크(Buck), 브리크(Bricks), 아사리(淺利), 우찌와다(扇田) 등이 있다.

##### 1) 선묘에 따른 심리반응

선묘는 정서적 에너지의 방출을 의미하며 내적 긴장도나 통제력의 정도를 드러낸다. 즉, 선묘의 강약, 방향, 강조에 따라 성숙도, 안정감, 자기 주장 혹은 갈등의 정도를 반영하며 감정의 변화를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sup>8)</sup> 김재은은 선묘진단에서 <표 1>과 같이 직선과 곡선을 즐겨 사용하는 어린이는 성숙도, 성(性), 성격의 상반된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예를 들어 직선을 주로 사용하는 어린이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성적인데 반해 곡선을 주로 사용하는 아동은 의존적이고 여성적인 성격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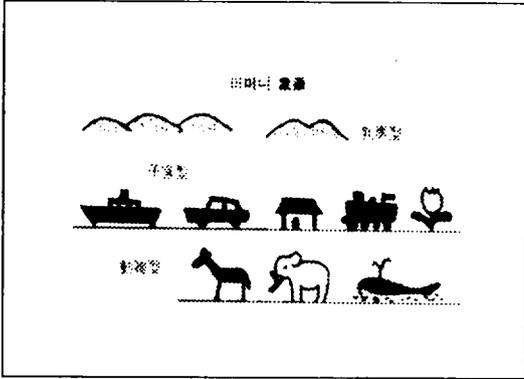
그리고 세로선과 가로선의 비중에 따라 성(性)차와 성격이 구분된다. 세로선을 즐겨 쓰는 어린이는 매우 독단적이고 남성적이며, 가로선의 경우는 침착하고 허약하며 여성적이다. 온순한 여성적인 성격을 가지면서도 남성적 역할을 바랄 때 양성 대립은 원과 수직선, 세로와 가로선의 교차 등으로 표현한다. 직선과 가로선은 남성을 상징하고 곡선과 수평선은 여성을 상징하는데, 이런 선의 상징은 소재표현의 수평 <그림 4>와 수직 <그림 5>

<sup>7)</sup> 오정현(1987), 『미술활동을 위한 창작공예』, 형설출판사, p.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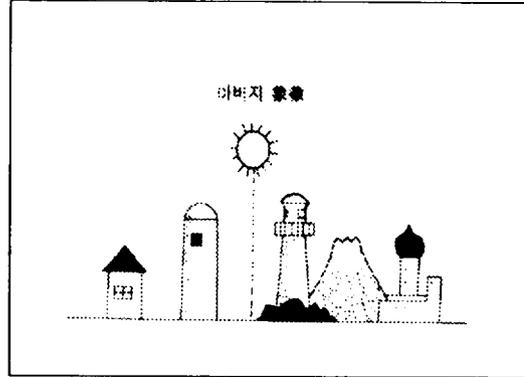
<sup>8)</sup> 이한옥(1989), 『그림분석을 통한 정서부적응아의 심리적 특성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p. 32~33.

의 방향성, 또는 윤곽선과 깊은 관련이 있다.<sup>9)</sup>

<그림 4> 어머니의 상징



<그림 5> 아버지의 상징



선묘진단은 난화기 어린이들에게 적절하게 생각되지만 표현능력이 미성숙한 시기에 있으므로 신체적 한계나 성장과정에 따른 표현특징을 고려해서 적용해야 한다.

<표 1> 선묘에 나타난 정서 상태<sup>10)</sup>

분 석 함 목	상 징 적 의 미
직선을 즐겨 사용	자기 주장이 강하고, 외향적, 남성적이다(Alschuler)
곡선을 즐겨 사용	미성숙, 의존적, 내향적, 여성적이다(Alschuler)
원형을 강조	우유부단, 매우 순종적, 두드러지게 여성적(Alschuler)
선이 짧거나 딱딱하다	정서적 긴장, 높은 정력수준의 표현이다. 저능아에서 볼 수 있다(Spoerl)
선이 부드럽다	신경질(과민성, 강박성, 불안성 등), 겁쟁이, 공포심, 자아허약(분리한 조건을 극복해 가는 힘이 약하다)
일부분만 강하다	그런 대상물에 집착하고 때로는 적의나 억압을 당하는 대상을 표현한다
흔들리고 있는 선	초조함이나 기질적 질환인 경우(Anastasi, Foley)
자주 끊어진 선	고집, 거부증 등을 나타냄
빨리 그린 선	충동적이다
가는 선으로 그린다	억압되어 있다(Bricks)
나선적인 선이 많다	마음의 해방을 바라고 있다(Bricks)
사선이 많다	불안감을 품고 있다
가로선이 많다	침착하고 허약한 편이며 여성적 경향이다
세로선이 많다	매우 독단적, 남성적이며 자기주장이 세다(Alschuler)

<sup>9)</sup> 香川·長谷川 共著, 김재은 외 譯(1986), 『兒童畫의 心理分析』, 학연사, pp. 91~99.

<sup>10)</sup> 김재은(1983), 『아동화의 심리진단』, 교육과학사, 전제서, pp. 194~198.

분 석 함 목	상 징 적 의 미
모가난 선이 많다	공격적 성향
원형이 많다	작은 등근 선이 많음 : 소유욕이 강한 것을 표시한다 의존적, 발달 미숙, 자기중심적 경향
삼각형과 같은 형이 많음	엄격한 부모의 훈육·틀에 박힌 창조성의 결여
윤곽선이 많다	정서적 발달의 미숙
곡선과 같은 굴곡이 많음	형식적인 훈육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
수직과 수평선의 교차가 많음	복종적인 행위와 자기 주장과의 두 가지 다른 충동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린 선	내향적, 자기중심적 판단, 고집, 낙담(Wolff)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린 선	외향적, 지도자의 소질, 지지해 줄 것을 요구(Wolff)
멋대로 그린다	개성적 표현, 체력이나 시력이 나쁨, 일에 흥미가 없음
난잡한 선이 모여 있다	비협력적 태도, 우유부단, 억압되어 있다
흐릿한 선	엄격한 통제로부터 도피(Mosse)
더러운 선(중복된 선)	이상자(Anastasi, Foley), 정신병적 징후(Mosse)

## 2) 색채에 따른 심리적 반응

아동화는 대상에 의존해서 표현하기 보다는 자기 감정의 흐름에 따라 표현한다. 분홍색 하늘, 빨간 눈사람, 파란 연기 등 뜻밖의 색깔로 표현하는 경우가 흔하다. 어린이들의 그런 표현은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아동화의 색채는 감정표현이며, 경험에 따른 개인의 정서상태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표 2〉에서와 같이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등의 따뜻한 색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은 대개 자유로운 감정적 행위, 따뜻한 애정관계, 자기 중심적인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행동적으로는 동정적(同情的), 의존적, 협조적인 특성을 보인다. 그에 반해 파란색, 초록색, 검정색, 고동색 등의 차가운 색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은 감정이 억제되어 있고 내부 감정을 참고 있으며, 행동적으로는 신중한 사고, 지적인 흥미, 공격적, 이기적, 독립적 경향을 보인다. 어린이들의 이런 특성은 성인들의 높은 기대와 자신의 개인적 욕망의 틈바구니에서 갈등을 겪거나, 부당하고 지나치게 억압받을 때 흔히 나타난다.<sup>11)</sup>

색채를 칠하는 순서, 배치나 방법에 따라 심리상태가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 가령 바탕에 빨간색을 칠하고 그 위에 검정색을 칠했다면 빨간색은 자기의 본래 감정이며, 그 위에 덧칠한 검정색은 숨기고자 하는 행동으로 보아진다. 그리고 큰 덩어리의 파란색을 자주

<sup>11)</sup> 香川·長谷川 共著, 김재은 외 譯(1986), 전계서, pp. 64~91.

쓰는 어린이는 집단에 대한 불안과 같은 공포심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또 초록색을 지저분하게 쓰는 어린이도 마찬가지로 초록색의 감정에 대한 부정적 심리상태를 갖고 있다. 특히 가정에서의 엄격한 훈육에 대한 불만이나 공격적인 감정적 태도, 혹은 퇴행적 욕구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아동화를 그리는 과정에서 지켜보는 일은 심적 갈등의 문제를 바로 이해하고 진단의 중요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표 2> 아사리(淺利)의 색채에 나타난 정서상태<sup>12)</sup>

구분	번호	색	심리적·생리적 의미
색 채 단 어	1	하얀색(WHITE)	경계심·실패감
	2	검정색(BLACK)	공포심·부모의 히스테리
	3	빨간색(RED)	불만·비판·공격
	4	주황색(ORANGE)	애정의 극도 결핍
	5	노란색(YELLOW)	애정의 욕구
	6	고동색(BROWN)	욕구·식욕·물욕
	7	초록색(GREEN)	허약·피로·슬픔
	8	파란색(BLUE)	의무감·복종·순종
	9	보라색(VIOLET)	질병의 상해와 그 영향
	10	분홍색(ROSE PINK)	아픈 마음(보라색 대응)
	11	회 색(GRAY)	불안(검정 대응)
색 채 속 어	12	검정색·빨간색	어머니의 꾸중·부재·사망·교사
	13	검정색·노란색	아버지에 꾸중·사망·교사
	14	검정색·고동색	극도의 애정 부족·도벽
	15	검정색·파란색	체념·심술·나쁨
	16	검정색·녹 색	학대·계모·반목
	17	검정색·보라색	어머니의 병적 히스테리
	18	검정색·흰 색	공포심
	19	빨강색·파란색	질투·선망
	20	빨강색·녹 색	성적 관심
	21	파란색·주황색	불결·우둔
	22	파란색·노랑색	근심
	23	보라색·흰 색	상해·실패감·가해·죄악감
	24	보라색·빨간색	출혈·월경
	25	보라색·노란색	질병·상해시 고독감

### 3) 구도에 따른 심리적 반응

구도라고 하면 소재의 위치, 크기, 강조, 배열 등 전체적인 아동화의 짜임새를 가리키는 것이며, 구도에 따른 심리진단은 어린이가 어느 위치에 즐겨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배열하는가에 따라 심리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난화기(Scribbling stage) 어린이들은 낙서의

<sup>12)</sup> 김춘일(1985),『아동미술론』, 미진사, p. 78.

같은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구체적인 소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낙서 같은 그림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의문을 가지고 접근하면 딸기, 엄마, 배 등 일상적 대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어디선가 들었던, 혹은 경험했던 기억을 토대로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그 낙서는 어린이마다의 적절한 위치와 크기에 따라 특색 있게 그려진다는 것이다. 도식기(Schematic stage)의 어린이인 경우는 사물을 객관화시키려는 노력이 엿보이며, 인물 혹은 사물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일정한 형태를 반복하여 그리는 경향이 보인다. 보기에는 유사한 형태를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럴 때마다 조금씩 형태가 명확해지고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누군가가 그 그림에는 다가서면 어떤 사건이나 경험했던 일화나, 어떤 주제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동화의 주제가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부위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린이 개인의 독특한 성격적 특성 및 정서상태를 알 수 있다.

구도에 의한 심리진단은 자유화, 인물화, 상상화 등 어느 곳이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알슬러와 하트비크의 구도분석은 <표 3>과 같이 주제의 대소, 상하, 좌우 등 큰 범주에서 분류하여 난화가 어린이에게도 적용하기 쉽게 하였다.

<표 3> 알슬러의 하트비크의 구도에 따른 정서상태<sup>13)</sup>

구도	분 석 항 목	상 징 적 의 미
크	크게 그릴 때	자신감 있고, 진취적이며, 적극적이다
	작게 그릴 때	열등감, 불안, 자기통제적이다
기	적절한 크기로 그릴 때	원만하고 이지적이며, 조직적이고, 주체적이다
위	중앙에 그릴 때	주체적, 긍정적 행동의 성격이다
	좌경에 그릴 때	강박적 행동, 자기욕구와 충동에 의한 직접적, 정서적 만족을 찾는다
치	우경에 그릴 때	안정적, 통제적 행동을 하며, 때로 욕구와 충동을 서슴치 않고 뒤로 미루며, 지적 만족을 구하는 내향적 성격이다
	상부에 그릴 때	노력형, 공상형이며, 초연적이고 지적이다
	하부에 그릴 때	우울, 집착, 열등감의 표현이다

#### 4) 형태에 따른 심리적 반응

형태에 의한 심리진단은 주제의 강조 부위, 상징과 내용, 안정감 등에 의해서 진단하게 된다. 프로이드(Freud)는 ‘꿈의 해석’에서 꿈은 어떤 보편적 상징을 지닌다고 보았다. 꿈에서의 뾰족한 형태의 사물은 남성을 상징하고, 그릇과 같은 용기는 여성을 상징한다고 했다.<sup>14)</sup> 어린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성적 욕구가 발달한다는 주장은 아동화의 심리분석에 있어

<sup>13)</sup> 김춘일(1985), 「아동미술론」, 전계서, p. 76.

<sup>14)</sup> 김재은(1983), 전계서, pp. 73~76.

서도 갈등 요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시해 주었다.

나카시니 요시오 <표 4>와 같이 신체 강조부위에 따라 갈등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허나 머리카락을 강조할 때는 성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성적 욕구가 강렬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궁회귀 소망’이라는 용어를 빌어 아동화에 투영된 성적 갈등의 문제와 정서적 측면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즉 어린이의 퇴행행동<sup>15)</sup>과 성적 욕구간에는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어린이가 환경적응에 대한 두려움이나 위협을 느끼면 엄마 품에 안기거나, 업어 달라는 행동과 수면을 즐기는 현상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런 무의식적 행동은 안전한 장소였던 엄마의 자궁을 그리워하여 엄마의 품과 자궁을 동일시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꿈속으로의 도피는 현실적 갈등을 해소하는 한 방법이 되며, 그 자체가 바로 자궁으로의 회귀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 때의 아동화는 큰 원으로 둘러싸인 형태, 인물화의 윤곽을 강조, 호리병에 들어간 자신의 모습은 퇴행욕구이며, 허리띠, 단추 등의 강조는 보호본능의 욕구를 드러낸 것이라고 한다. 그에 반해 <표 5>에서와 같이 아사리(淺利)의 심리진단은 보편적 상징에 의하여 정서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즉, 어린이를 태우고 실을 수 있는 보호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배, 집, 자동차 등과 움직임이 둔한 동물인 기린, 코끼리, 고래 등은 어머니를 상징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남자의 성기처럼 높게 솟아오른 산이나 등대, 탑 등과 자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태양 등은 아버지를 상징한다고 보았다.<sup>16)</sup>

요시오와 아사리는 둘 모두 아동화에 투사된 성(性)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 방법이 판이하게 다르다. 요시오는 모성 본능에 바탕을 둔 퇴행적 욕구라는 관점에서 아동화를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아사리는 아동화에 그려진 소재 속에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양성(性)의 상징을 투사하며, 양성은 조화와 대립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다. 어머니의 상징과 아버지의 상징 중에 어느 쪽을 즐겨 그리느냐에 따라 애정이 차별화된다는 점이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변하며 애정을 받는 쪽이 누구냐에 따라 소재의 흐름이 변한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요시오의 성(性)적 표현은 내적 갈등으로 인한 퇴행현상에 두고 있으나, 아사리는 애정의 대상이나 부모간의 외적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차이를 보인다.

<sup>15)</sup> 퇴행행동 : 환경에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두려워하거나 도피하려는 태도이다. 즉,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면 편안한 엄마의 자궁을 그리워하게 욕구가 발동하게 된다. 이 때 반사적으로 정신 연령이 낮은 행동을 취하거나 껌이 같은 행동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현상을 가리킨다.

<sup>16)</sup> 香川·長谷川 共著, 김재은 외 譯(1986), 전제서, pp. 91~99.

<표 4> 4세 이후 어린이의 강조 부위에 따른 정서상태<sup>17)</sup>

강조 부위에 따른 분석	강조 부위	상징적 의미
	머리 부위 강조	머리가 아프거나 뇌파에 이상이 있음
	큰 얼굴	취학 전까지는 정상적 특징임
	얼굴을 생략, 뒷모습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
	혀와 검은 발	야뇨증이나 성에 문제가 있음
	입과 긴 머리카락을 강조	구강 욕구, 혹은 성적 욕구의 상징
	검게 칠한 코와 긴 목	감기나 소화기에 이상이 있음
	팔과 손을 지나치게 강조	죄의식을 나타냄
	인물의 외곽을 둘러쌌	퇴행적 욕구
	관절이나 단추를 강조	엄마에 대한 의존적 애정 욕구
둥근 어깨	온순한 성격	

<표 5> 정신분석학적 형태의 상징과 정서상태<sup>18)</sup>

소재	상징적 의미	학자
사람	자기 자신, 주변의 인상적 인물, 주위 관계 인물 : 주변의 친구나 가족관계	Buck 扇田
집	어머니	淺利, 扇田
	자신의 정신적(성적) 성숙과 적응면	Buck
나무	고목 : 손, 소나무 : 기다림	淺利
	자신의 심리적 잠재의식 표현, 현실과의 접촉면, 대인관계면 혹은 가끔 타인을 묘사하기도 함 집 주변의 나무 : 가족의 상징	Buck
꽃	해바라기형 : 아버지, 톨립 : 어머니	淺利
산	봉우리 하나 : 아버지, 봉우리 여러 개 : 어머니	淺利
태양	아버지와의 거리감	淺利
나비	왕래	淺利
코끼리, 고래, 뱀, 배, 기관차	어머니	淺利
큰 구름	작은 불안	Buck
굴뚝	남성의 상징 연기 강조 : 따뜻한 가정을 원함, 굴뚝을 지움 : 성적 갈등	Buck
창	유리창이 없음 : 구강, 또는 항문적 성욕	Buck 扇田
	보통 정도의 수 : 노출하고 싶은 경향 창이 가늘고 많음 : 가정 환경과 조절이 불안	
문	너무 작은 문 : 과묵, 우유부단한 감정	扇田
	문이 열려 있고 가운데 사람이 서 있음 : 가정의 희망 문이 열려 있고 가운데 사람이 없음 : 자기 방어감 결핍 현관이 어둡게 그늘짐 : 유아적 퇴행 욕구, 불안한 감정	
나무 줄기	굵음 : 자기 주장이 강하고 열등감의 보상으로 자기 과시 밀변 선이 없음 : 현실에서의 도피	Buck

<sup>17)</sup> 나카시나 요시오(1996), 『그림으로 읽는 아이들의 마음』, 사계절, pp. 42~123.

<sup>18)</sup> 박재명(1969), 전제서, pp. 38~48.

위에서 아동화의 심리적 반응을 선묘, 색채, 구도, 형태로 나누어 개별적 성격과 성(性)차, 부모에 대한 애정과 갈등, 환경의 적응과 욕구 등의 다양한 정서상태를 살펴보았다

## 2. 심리진단과 어린이 상담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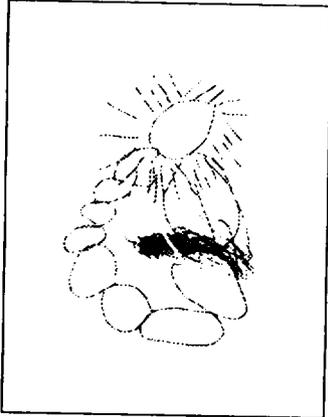
여기서는 아동화의 심리진단 및 상담치료의 사례를 들어 어린이 상담치료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여 보도록 하겠다.

해리스(Harris)는 어린이들이 선과 색채를 통해 자신의 심리상태를 표현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들의 특수한 감정이나 정확한 정서상태를 진단하기는 곤란하다고 하였다. 이는 다양한 인간의 행동양식에 하나의 틀을 공식적으로 풀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sup>19)</sup> 단지 면담과정에서 어린이가 주로 표현하는 어떤 상징의 표현 특성이나 언어적 행동을 빌어 심리상태를 투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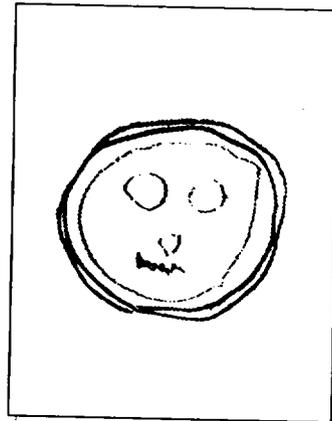
상담치료가 요구되는 경우는 부모의 애정욕구, 부모에 대한 불만, 성(性)역할의 갈등, 신체적 결함, 주변환경의 부적응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다음은 남녀 어린이의 그림으로 가정에 대한 불만이 아동화에 투사된 사례이다.

<그림 6> 손톱 물어뜯기(5세)



<그림 7> 말이 더딘 아이(4세)



<그림 6>과 <그림 7>은 가정적 보살핌이 부족하여 애정을 갈구하는 어린이의 퇴행적 욕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준 요시오의 연구 사례이다.

사례 1 : <그림 6>는 다섯 살된 남자 어린이의 그림으로 가족은 부모와 남동생을 포함하여 네 명이고, 건강 상태는 보통이다. 세 살 짜리 동생과 자주 다투어 그 때마다 어머니에게 혼났었다. 어머니의 애정이 절실했던 이 아이는 가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고 싶

<sup>19)</sup> 임정빈(1994), 「미술을 이용한 아동의 심리진단과 미술치료의 역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p. 19~22.

어.”라고 소리치곤 하였다. 이 어린이의 그림에 동그랗게 놓인 크고 작은 원은 돌이고, 안에 있는 것은 사람, 위에 있는 것은 태양이다. 이 어린이는 “안에 있는 게 나야?”했다가 나중에 “동생이 타고 있는 모습이야.”하고 어머니에게 말하며 연기를 그렸다고 한다. 어린이들은 자기가 그린 그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짤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동그라미는 태내를 나타낸 것이며,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인데, 동생에 대한 질투심에서 동생이 불타는 모습이라고 말했던 것이다.<sup>20)</sup>

사례 2 : <그림 7>는 네 살 정도의 여자 어린이의 그림인데, 이 그림을 그린 어린이는 아주 심하게 말을 더듬는다. 그리고 간혹 말을 해도 한두 마디에 지나지 않는다. 그 어린이는 지능도 정상이고 지시에도 잘 따랐다. 두 살 때 말이 나오지 않아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았지만 정상이었다고 한다. 가족은 부모와 초등학교 다니는 남매, 조부모 모두해서 일곱 식구이고, 부모가 모두 공무원으로 매우 바빠 그 어린이는 조부모에게 맡겨졌지만 조부모도 일에 쫓기다 보니 어린이에게는 별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이 어린이도 집에서 혼자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정에 굶주린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어린이는 분홍색으로 얼굴을 그리고 나서 빨간색 선으로 둘러쌌다. 색을 바꾸어 두 점으로 둘러싼 것으로 보아 얼굴이 아니라, 신체를 둘러싼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태내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눈, 코에 비해 입이 강조되었는데, 입의 강조는 식사문제, 대인관계, 언어문제, 성적(性的) 문제 등의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대인관계에 대한 고민을 말한다고 보겠다. 보통 이 어린이가 또래의 지능이면 두족인<sup>21)</sup>을 그릴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는 지능이 높지만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sup>22)</sup>

남자 어린이의 경우는 부모의 사랑을 받다가 동생이 태어나자 동생에게 부모의 애정을 빼앗길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자 어린이의 경우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돌봐 줄 사람이 없는 소외감 속에서 성장하다보니 대인관계의 두려움으로 진전된 사례이다.

두 어린이의 그림에는 원으로 자신을 둘러싸아 주변환경과 고립된 모습이 있으며, 그것은 자신의 심리상태를 투사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애정결핍에서 오는 보호본능의 퇴행적 욕구를 표현한 적절한 사례라고 하겠다. 퇴행적 행동은 가볍게 관심을 끌기 위한 웅석이나 투정, 잦은 싸움이나 말다툼에서 심하게는 야뇨증, 말더듬, 두통 등 신체적 장애를 수반하기도 한다.

다음은 어떤 어린이의 심리적 갈등이 투사된 사례와 상담치료한 내용이다. 로저스가 제

<sup>20)</sup> 나카시니 요시오(1996), 전계서, pp. 120~121.

<sup>21)</sup> 두족인(頭足人) : 5세 전후에 최초로 그리게 되는 인물표현을 말한다. 주로 원형에서 바로 손발이 나온 머리와 몸체가 미분화된 상태의 그림이다.

<sup>22)</sup> 나카시니 요시오(1996), 전계서, pp. 144~146.

시한 유사한 몇 개의 사례 중에 네 살의 어린이의 점토(찰흙)표현을 하나의 예로 들겠다.

사례 3 : 레이몬드는 남자 어린이로 네 살이 되던 해에 유아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런데 성격이 극히 내향적이라서 다른 어린이들과 전혀 말도 하지 않고 놀지도 않았다.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보였다. 그러나 소아과 의사는 그 어린이의 신체적 조건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모친은 레이몬드가 집에서 몇 시간이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앉아 있을 때는 마치 그 어린이가 목석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린이 부적응의 원인에 대해 부모와 면담을 통해 얻은 몇가지 사실 중 하나는 양친이 상호간에 대단히 긴장된 상황에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표면상으로 싸우지 않는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하였다. 레이몬드의 모친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술을 마시고, 애들을 때리며, 미친 듯이 욕설을 하는 등 남편에 품고 있는 적의 감정을 자식들에게 던졌다. 이런 이유로 레이몬드는 수용적이 되고 참을성은 길러졌으나 모친의 감정에 너무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레이몬드는 일반적인 면담을 여러번 가지려고 했지만 언제나 면담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매개물을 이용하지 않고는 면담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그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 그가 육체적 작용을 통하여 공격심을 표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예를 들어 마루에 대변을 보거나 여선생에게 자기 성기를 끄집어내어 보이고, 여선생 앞에서 수음(手淫)까지 했다.

어느 날 점토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려고 여선생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 상(像)은 그에게 있어서 모친이었다. 그 상을 때리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며, 그 위에 소변을 보기도 하고 팔, 다리, 머리를 뽑아 버리는 행동이 몇칠 동안 되풀이되었다. 여선생은 그의 행동을 묵묵히 지켜만 보았다.

마지막 날 모친의 상(像)을 입으로 깨물기도 하고 잘라 버리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며 큰 소동을 일으키더니 그는 돌연히 누그러졌다. 처음으로 그는 동정적인 말을 꺼냈다. “아아, 이제 죽었다. 불쌍하게, 늙고 더러운 것” 다음에는 점토를 주워 올리며 상냥하게 말했다. “불쌍하게도, 넘어져 있구먼. 병원차를 빨리 불러야지, 불쌍하게도, 늙고 더러운 것, 이제 완전히 죽어 버렸어.” 그는 그 상(像)을 부드럽게 두들겼다. “자, 속에 무엇이 있는가 봐야지.” 그리고는 그 점토의 상(像)을 할퀴며 소리쳤다. “아! 피가 있다. 피가 흘러 병원차에 빨리 태워.” 그는 다시 상을 주워 올리며 “난 이제 때리지 않을께, 어머니!”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여선생을 향해 다시 어머니의 상(像)을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여선생은 점토의 상(像)을 고쳐 주면서 이제 늙고 더러운 어머니는 죽고 이것은 그 애가 원하는 새 어머니라고 설명해 주었다.

레이몬드는 그 상(像)을 새로운 어머니라고 불렀다. 그런데 선생이 서둘러 만들어 주는 바람에 다리 하나가 잘 붙지 않아 떨어져 나갔다. 그 애는 스스로 그것을 잡고 정성껏 다시 붙였다. 그것은 그 애가 노는 도중에 보인 어머니에 대한 최초의 정성어린 표현이었다. 잠시 후 그는 그 상을 부수지 않고 점토판에 넣으면서 부드러운 말투로 “그냥 가만히 보세요.”라고 말했다. 확실히 옛 어머니에 대한 적의를 해소함으로써 드디어 그는 새 어머니를 수용(受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커다란 변화가 행동에서 나타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말을 더듬지 않았고,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시작했다. 그는 전보다는 바보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고 다정스럽게 응답을 요구했다. 결국 아무 긴장도 없는 개방적이고 자연스러운 어린이가 되었다.<sup>23)</sup>

레이몬드의 사례는 심리적 갈등이 유희적 표현활동에 어떻게 투사되어 나타나며 승화되는가를 보여준다. 레이몬드는 부모에 대한 적의적 태도를 갖고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환경의 부적응, 말더듬, 자기 학대 등의 정서적 장애를 앓고 있었다. 그러나 점토표현을 통하여 갈등 감정을 분출하고 결국은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앞의 사례들에서 어린이의 심리적 갈등은 부모의 애정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어린이들은 부모의 애정결핍, 애정에 대한 갈등의 심리적 보상을 받기 위해 다른데서 애정을 갈구하거나, 애정을 빼앗긴 사람에게 공격적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애정을 보상받지 못할 때는 퇴행적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다. ‘사례 3’에서는 점토의 형상(상징)을 갈등의 원인이었던 어머니와 동일시하고 있다. 어린이는 거기에 얼마 동안 강한 적대적 충동을 발산하다가 얼마 후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감정이 사그러진다. 지켜보던 교사는 ‘새 어머니’라는 상징을 새로운 의미를 부여 감정을 환기시켰다. 어떤 면에서는 점토표현의 유희적 놀이활동과 유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미술활동과 같이 어떤 주제나 표현기법, 태도의 제한 등 어떤 제시도 없었다는 점과 갈등의 전환적 계기를 주목하여야 한다. 이런 특성은 아동화에서의 상징적 투사와 유사하다. 그래서 아동화 표현의 주제나 표현방법에 따라 대립적 갈등을 명확히 투사하고, 스스로 갈등의 원인을 발견하여 치료효과를 가져오게 하려는 것이다.

앞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상담치료는 심리진단을 통해 욕구, 장애, 적응 등의 어린이가 처한 환경적, 심리적 갈등요인을 바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부모가 그 어린이의 입장에 서서 갈등감정을 이해하고, 자유로운 표현을 장려하여 심리적 공감을 통하여 스스로 치료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sup>23)</sup> C. Rogers著, 한승호 譯(1994), 전계서, pp. 164~170.

## V. 결 론

본 연구는 어린이 상담을 위한 아동화의 심리진단 연구이다.

아동화는 성장에 따른 적절한 표현 양식을 보인다. 즉 난화기는 미성숙한 시기이므로 구체적 형태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선묘의 위치, 색의 선택에 의존하여 심리를 분석하는 수밖에 없다. 그에 반해 도식기에는 소재간의 유기적 관계를 보이며 형태를 빌어 어떤 상징을 표현하게 된다. 심리진단의 접근은 선묘, 색채, 구도, 형태의 다각적 접근 및 분석을 하였다.

내용을 요약하면 선묘의 진단은 의존적이고 여성적 심리는 가로선과 곡선,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성적 심리는 세로선과 직선 표현을 통해 나타난다. 그런데 원과 수직, 혹은 가로선과 세로선의 교차는 양성의 대립 갈등을 보여주는 예이다.

색채의 진단으로 빨간색, 주황색, 노랑색 등 따뜻한 색을 좋아하는 어린이는 자유로운 감정행위, 따뜻한 애정관계, 자기 중심적 경향을 보이며, 행동적으로는 동정적, 의존적, 협조적 특성이 나타난다. 그에 반해 파란색, 초록색, 검정색 등 차가운 색을 좋아하는 어린이는 감정이 억제되어 있고 내부감정을 참고 있다. 이때 행동적으로는 신중한 사고, 지적 흥미, 공격적, 이기적 경향을 보인다.

구도의 진단에서 중앙은 긍정적, 우경은 통제적, 좌경은 충동적 성격이다. 상부는 공상적이고 하부는 열등감 등 위치에 따라 성격적 대립을 나타낸다.

형태의 진단은 성(性)을 표현할 때, 원형 속에 고립이나 사방을 둘러싼 윤곽의 형태는 모성애의 상징으로 보호본능 욕구를 의미한다. 소재를 다루는데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이라는 양성의 대립관계로 다루고 있는데, 이 처럼 상징을 보는 견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심리진단은 성에 따른 상징적 표현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여성의 상징으로는 곡선, 가로선, 따뜻한 색, 담고 태울 수 있는 형태, 곡선적 형태 등이 있고, 남성의 상징으로는 직선, 세로선, 차가운 색, 치솟은 형태, 태양 등이 있다. 그리고 양성 대립과 퇴행적 갈등의 상징으로 원형과 직선의 교차, 수직과 수평의 교차, 혼색 또는 난잡한 색, 형태의 윤곽과 사방의 고립 등이라 하겠다.

심리진단과 상담치료에서 요시오와 로저스의 사례를 들었다. 요시오는 아동화는 애정결핍에 따른 퇴행적 욕구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진단사례와 점토 매체를 활용한 로저스의 상담사례를 들었다. 로저스 사례는 어린이가 점토(매체)를 가지고 노는 과정에서 어린이 자신의 억압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여 감정을 순화시키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아동화의 유희적 표현활동에서 억압된 갈등감정이 상징적으로 투사된다. 그래서 아동화 표현과 대화 속에는 애정욕구, 성숙도, 안정감, 자기 주장이나 갈등이 상징적으로 표현된다

는 것이며, 그러므로 아동화의 표현과 대화에서 의도나 감정, 충동을 밖으로 명확히 드러나게 하여 감정을 순화시켜 정서적 안정을 도우려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심리진단과 상담사례에서 보았듯이 아동화는 미적 표현이기 이전에 생활환경 경험을 반영한 심리적 표현이며, 감정의 언어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아동화는 무엇을 그리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상징을 통하여 감정을 투사하고 있으며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과 내적 갈등을 공감하고 공유할 때 진정 그들의 마음에 다가설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동화 진단에 의한 취학전 어린이 상담의 방법에 대해 방향 모색을 해보았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앞으로 많은 연구들이 기대되는 영역이라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겔록(R. Kellogg), 「유아미술」, 이인태 譯(1987), 보육사.
- 권상구(1991), 「아동미술교육」, 미진사.
- 김재은(1983), 「아동의 심리진단」, 교육과학사.
- 김 정(1985), 「유아미술입문」, 일지사.
- 김춘일(1985), 「아동미술론」, 미진사.
- 김춘일(1986), 「미술교육론」, 홍성사.
- 나카시니 요시오(1996), 「그림으로 읽는 아이들의 마음」, 사계절.
- 로저스(C. Rogers),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 한승호 譯(1994), 집문당.
- 설영환(1986), 「프로이드 심리학 해설」, 선영사.
- 오정현(1987), 「미술활동을 위한 창작공예」, 형설출판사.
- 이성진(1996), 「교육심리학서설」, 교육과학사.
- 이정환(1984), 「유아를 위한 미술 교육」, 교문사.
- 카가와 (香川) 외, 『兒童畫의 心理分析』, 김재은 외 譯(1986), 학연사.
- 김미옥(1992), 「유아의 색채선호와 그 색채와 관련된 심리적 반응」,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재명(1969), 「아동화의 심리진단적 가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한옥(1989), 「그림분석을 통한 정서부적응아의 심리적 특성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정빈(1994), 「미술을 이용한 아동의 심리진단과 미술치료의 역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